



KIA 새 기록 쓴다

팀 최다 관중... 56경기만에 47만 돌파
6년만에 10승대 투수 4명 배출 '눈앞'
89년 이후 김상현·최희섭 '홈런왕' 도전
김상현 역대 네번째 최소경기 100타점

(이종범)

(나지완)

(양현종)

(김상현)

(최희섭)

(구름슨)

KIA의 2009년은 이제 역사가 된다.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11-1의 대승을 거뒀던 26일 KIA 타이거즈에게는 특별한 세 가지 기록이 탄생했다. 평일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1만20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으면서 팀 역대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이 새로 작성됐다. 기존 기록은 1996년 63경기를 치르며 기록한 46만8천922명이지만 KIA는 26일 56경기만에 47만4천494명의 관중을 동원했다. 투·타의 수훈 선수가 됐던 양현종과 김상현에게도 잊지 못할 하루가 됐다. 선발로 등판한 프로 3년차 양현종은 한화 다이내믹스 타선을 맞아 2피안타 3사구 6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10승 고지에 오르며 데뷔 후 첫 두자릿 승수의 기쁨을 누렸다. 양현종의 10승 달성으로 KIA에는 두자릿수 승을 기록한 투수가 구름슨(12승), 로페즈(11승)를 포함 모두 세 명이 됐다. 지난해에는 14승을 올린 윤석민이 팀의 유일한 두자릿수 승리 투수였다. 임시 마무리를 하느라 뒤늦게 승수 쌓기에 뛰어든 윤석민도 현재 8승을 기록하고 있어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총 4명의 10승 투수가 배출될 수도 있다. KIA는 2003년 선발 김진우·리오스·최상덕과 불펜에서 활약했던 신용운이 10승 투수로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윤석민이 2승을 추가하면 선발진으로 구성된 10승 4인방이 탄생한다. '해결사' 김상현도 뒤늦게 프로야구 역사에 족적을 남기게 됐다. 프로 9년차 김상현은 26일 3회말 2사만루에서 중

전 안타로 두 명의 타자를 불러들이며 101번째 타점을 올렸다. 역대 네번째 최소 경기(99경기)만에 채운 100타점이다. 김상현은 2003년 장성호, 홍세완에 이어 6년만에 탄생한 팀의 100타점 타자이자, 21년만의 타점왕후보다. 1988년 김성현 이후 KIA는 타점왕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김상현은 이날 5회 28호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20년만의 홈런왕에도 속도를 냈다. 1989년 김성현이 팀의 마지막 홈런왕이다. 김상현을 필두로 한 최희섭·나지완 등 세 거포는 올 시즌 20홈런 고지를 넘어서며 달리진 KIA의 장타력을 과시하고 있다. KIA는 2002년 홍세완·장성호·이종범이 20홈런을 터트린 이후 홈런 하락세속에 지난해에는 48개의 홈런으로 8개구단 최하위를 기록했다. 팀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병현 감독도 지난 12일 롯데전에서 11연승을 이어가며 자신의 10연승 기록을 넘어서었다. 팀은 2003년 이후 팀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세웠다. KIA를 움직이고 있는 '최고참' 이종범은 6월5일 광주 삼성전에서 최소경기 개인통산 1000득점, 500도루를 동시에 기록하며 매경기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막둥이' 안치훈은 10대에 두 자릿수 홈런을 쏘아 올린 5번째 선수이자 사상 첫 고졸신인 올스타의 영예를 안은 것은 물론 올스타전 최연소 홈런과 '미스터 올스타'라는 극적인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2천516일만에 1위, 그뒤 꺼지지 않는 KIA의 기세가 프로야구 역사를 바꾸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즈 또 꺾어주세요”

비클레이스 출전 양용은 인기
기자회견장 팬들 몰려 응원

“타이거 우즈를 이긴 ‘Y.E 양’ 이잖아요. 이번에도 우즈를 이겨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를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꺾고 우승한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 리버티 내셔널 골프장에서 27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플레이오프 시리즈 첫 대회인 비클레이스에 출전하는 양용은의 인기는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날 대회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양용은의 기자회견장은 한국 특파원과 외국 언론사 등 50여명의 보도진으로 가득찼다. 양용은은 지난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테일

러메이드 본사에 갔다가 바로 옆 골프장에서 부시 전 대통령과 만나 20~30분간 대화를 나눴다며 “같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부시 전 대통령이 시간이 맞으면 골프를 한번 치자고 하길래 대화를 빠지더라도 라운드를 함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AP TV 등 미국 언론과 인터뷰도 쉬지 않고 진행됐다. 양용은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에 프로암대회를 치렀지만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이 끝난 뒤 다시 연습에 들어갔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연습을 하는 곳으로 향하는 길에 그를 반기며 사인을 해달라는 어린이 등 팬들에게 50여명에게 사인을 해주었다. 그를 따라가던 기자들이 관중들에게 이 선수를 아느냐고 묻자 타이거 우즈를 이긴 양용은 아니냐며 곧바로 “이기라”는 응원들이 돌아왔다. /연합뉴스



연습도 실전처럼 '완벽 샷'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 리버티 내셔널 골프장에서 27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플레이오프 시리즈 첫 대회인 비클레이스에 출전하는 양용은(37)이 연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시즌 30번째 2루타

캔자스시티전 2안타 1타점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2안타 1타점으로 활약했다. 추신수는 27일(한국시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카우프만 스타디움에서 계속된 미국 프로야구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원정 경기에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5차례 타석에 들어서 4타수 2안타와 몸에 맞는 공 하나를 기록했다. 전날 3연타석 삼진을 당했던 추신수는 첫 타석부터 안타를 때려 기분을 진환했다. 1회초 1사 1루에서 캔자스시티 선발 투수 루크 호치버의 빠른 볼을 받아쳐 중견수 앞에 빨랫줄 타구를 보냈다. 1-1로 팽팽히 맞서던 3회 다시 방망이가 폭발했다.

1사 1루 기회에 나온 추신수는 호치버의 시속 153km짜리 바깥쪽 낮은 포심 패스트볼을 간결한 스윙으로 때렸다. 배트 중심에 걸린 타구는 쪽쪽 뿜어나가 중견수 오른쪽으로 빠졌다. 3루 주자 그레디 사이즈모어를 불러 들였지만 1루 주자 제이미 캐롤은 홈에서 태그 아웃됐다. 그 틈에 추신수는 3루까지 내달렸다. 시즌 30번째 2루타를 기록한 추신수는 타점을 69개로 늘렸다. 5회초 싱커에 헛스윙 삼진당한 추신수는 7회 사구로 걸어나갔고 9회에는 2루수 땅볼로 아웃됐다. 타율은 0.295에서 0.297로 올랐다. 클리블랜드는 추신수의 2안타를 포함해 10안타를 터트려 4-2로 이겼다. /연합뉴스